

일반논문

조선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통유론(通儒論)과 직분론(職分論)의 대립과 절충*

이경록**

- I. 머리말
- II. 건국초기의 의료관서 강화
 - 1. 의과의 시행
 - 2. 연이은 의학교육 조치
 - 3. 현직 문신들의 의직 활용
- III. 세종~성종대 의료진흥정책의 추이
 - 1. 의서습독관의 신설과 통유론의 논리
 - 2. 의료진흥정책의 강화에 대한 직분론의 고수
 - 3. 의료진흥정책의 법제화와 두 입장의 타협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에서는 원간섭기 이래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행정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관서는 유명무실해지고 임시기구가 치폐를 반복하였다. 고려말에는 의관

* 이 논문은 2019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학과 연구부교수, 의과학 전공

(醫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여서 의료관직(醫職)은 향리(鄕吏)들의 피역(避役)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고려말 의료의 난맥상을 목도한 조선의 건국세력은 의료제도의 정비와 강력한 의학장려책을 추진하였다. 조선 정부가 의료정책을 구상할 때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의관(醫官)이 될 것인가였다. 즉 의료제도의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조선에서 의관이 되는 길은 네 가지였다. 오롯이 실력의 결과인 특채를 비롯하여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 재직, 의과(醫科) 합격, 취재(取才) 통과였다. 특채로 의관이 되는 경우는 전시기에 걸쳐 나타났는데 선초의 양홍달(楊弘達)이나 명종대의 임언국(任彦國)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다. 의서습독관제도는 성종대를 정점으로 16세기에 들어서 점차 소멸하므로, 의관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의과와 취재였다. 의과가 취재보다 중시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는 증인층으로 고정된 의관들이 의료를 담당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¹⁾ 하지만 선초의 의관들을 조사해보면, 세종 20년(1438) 문과에 합격하고도 의관의 길을 선택한 이효신(李孝信)의 사례가 있다. 그는 전의감(典醫監) 정(正, 정3품)까지 도달하였다.²⁾ 게다가 이효신은 도승지와 참찬의정부사 등을 역임한 고위관료 이문화(李文和)의 아들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조선초기에 의서습독관을 거쳐 의관으로 활동하려면 양인(良人)들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증인층이 주로 의관이 되는 것은 의료 관련 주체들간의 대립을 통한 타협의 결과였다. 그 타협 과정에 100년이 필요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보면 흔히 의직(醫職)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의료인의 대우에 대한 평가를 동일시한다. 이를테면 의직을 천시하는 것과 의료인을 천시하는 것을 혼용한다.³⁾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관련되어 있으나 분명히 다른 측면이다. 국가체제 내에서 살펴볼 때 의직의 위상은 핵심적인가[本] 사소한가[末]로 구분할 수 있고, 의료인의 지위는 존귀한가[貴] 비천한가[賤]로 구분할 수 있다. 15세기에는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서로 대립하

1)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토대로 의료기구, 의학교육, 인물들을 정리하였으며, 의서습독관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自家出版, 1963); 金斗鍾, 『韓國醫學史』(探求堂, 1966); 孫弘烈, 「世宗朝의 醫療政策」, 『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경희대 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87);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조선초기 의료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다음 글도 참고 된다.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태학사, 2002); 鄭多函, 『朝鮮前期 兩班 雜學兼修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 『世祖實錄』 卷2, 세조 1년(1455) 12월 27일(무진).

3)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142.

면서 타협점을 찾아간다.

이 글에서는 15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진흥정책의 시행을 면밀하게 추적하려고 한다. 주요사건으로 꼽자면 건국 직후의 의과 시행과 양가 자제 교육부터 태종대 현직 문신들의 활용, 세종대 의서습독관의 시행, 세조대 칠학(七學)의 운영, 성종대 『경국대전』 규정으로의 수렴과 그 추이 등을 다룬다. 이들 사건의 전개에는 통유론(通儒論)과 직분론(職分論)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 양측의 타협으로 16세기 조선 의료가 형성되었음을 논 의할 것이다.

II. 건국초기의 의료관서 강화

1. 의과의 시행

의료관서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의과(醫科) 시험 실시였다. 의과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건국하자마자 제정된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이었다. 관리가 되는 7개의 경로 가운데 하나로 의과가 규정된 것이다.⁴⁾ 이듬해인 태조 2년(1393) 의학(醫學)에 능통한 사람을 시험하여 의직(醫職)에 충원하자는 건의에 이어서⁵⁾ 실제로 태조 6년(1397)에는 의과를 실시하여 의관(醫官) 8명을 선발하였다.⁶⁾

하지만 조선초기의 의과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의과방목(醫科榜目)』에서도 훨씬 후의 의과합격자들을 싣고 있다. 의과 시행에 대해서는 성종대의 『경국대전』을 통해서야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의감은 정3품 정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1명·의학교수 2명, 종7품 직장 2명, 종8품 봉사 2명, 정9품 부봉사 4명·의학훈도 1명, 종9품 참봉 5명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6품 주부 이상 즉 참상관(參上官)은 의과 합격자만이 승진할 수 있었다.⁷⁾ 아울러 의학교수와 의학훈도는 의과 합격자 중에서 임용되므로⁸⁾ 의관으로 근무하는 데 의과 합격은 아주 중요하였다.

4) 『太祖實錄』 卷1, 태조 1년(1392) 8월 2일(신해).

5) 『太祖實錄』 卷4, 태조 2년(1393) 7월 14일(정사).

6) 『太祖實錄』 卷11, 태조 6년(1397) 2월 22일(을사).

7) 『經國大典』 권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典醫監.

8) 『經國大典』 권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의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의학(醫學)’의 생도가 전의감에는 50명, 헤민서에는 30명이 있었다. 지방 의학 생도의 경우에 부(府)는 16명,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은 각 14명, 도호부(都護府)는 12명, 군(郡)은 10명, 현(縣)은 8명이 배정되었다.⁹⁾ 전국의 의학 생도 숫자가 꽤 많다. 반면 의과는 3년마다 시행하여 9명만 뽑는 것이 원칙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과는 원래 천인들이 응시할 수 없었다.¹⁰⁾ 의과 통과 역시 등용문이라 할만했다.

의과의 수석 합격자는 종8품에 서용되었는데, 합격자의 품계 규정으로 보아 현직에 있다가 의과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¹¹⁾ 의과에 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과(醫科) 초시(初試). 인원수. 18명[전의감에서 명단을 관리하여 시취(試取)한다]. 강서(講書). 『찬도맥』·『동인경』[송(誦)으로 한다]·『직지방』·『득효방』·『부인대전』·『창진집』·『태산집요』·『구급방』·『화제방』[『화제지남』은 송(誦)으로 한다]·『본초』·『경국대전』[임문(臨文)으로 한다].

의과 복시(覆試). (인원수) 9명[본조(예조·인용자)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명단을 관리하여 시취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¹²⁾

이 규정에 보이듯이 초시 합격자 18명은 전의감에서 선발하고, 복시에서는 예조와 전의감에서 주관하여 9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과목은 초시와 복시가 동일했으며 『찬도맥(纂圖脉)』을 비롯한 12개 과목이었다. 그리고 의과와 함께 의관 선발의 통로였던 의학(醫學) 취재(取才)와 침구의(針灸醫) 취재 규정도 『경국대전』에 실려 있다. 취재 규정에 따르면 1월, 4월, 7월, 10월에 예조와 전의감 제조가 시행하였다. 교과목은 의과와 비슷하지만 더 많다.¹³⁾ 약칭으로 기록된 의서들은 그 실체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경

9) 『經國大典』 권3, 禮典 生徒.

10) 연산군 3년(1497)에 서얼 李稱壽의 의과 응시를 허용하였으며, 중종 38년(1543)에 편찬된 『大典後續錄』에 이르러 2품 이상 문무 관료의 妾曾玄孫이 잡과에 응시하는 것을 법제적으로 허용하였다(『燕山君日記』 卷25, 연산군 3년(1497) 7월 2일(신축); 『大典後續錄』 卷3, 禮典 諸科).

11) 『經國大典』 권1, 吏典 諸科. 『잡과방목』을 분석해보면, 잡과 합격자 중에는 현직자가 많이 합격하였고, 현직자가 아니더라도 생도, 전함, 의생 등 잡과 기술학을 수습하고 있는 부류가 많았다(이남희, 「16·17세기 雜科入格者의 前歷과 官路 進出」, 『民族文化』 18, 1995, 278).

12) 『經國大典』 권3, 禮典 諸科. 醫科初試. 額數. 十八人[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纂圖脉·銅人經[誦]·直指方·得效方·婦人大全·瘡疹集·胎產集要·救急方·和劑方[指南則誦]·本草·經國大典[臨文]. 醫科覆試. (額數)九人[本曹同本監提調錄名試取]. (講書)同初試.

13) 『經國大典』 권3, 禮典 取才. 取才諸學四孟月, 本曹同提調取才. 舞提調處, 則同該曹堂上官取才. [醫學纂圖脉·銅人經(已上誦, 年五十歲以上則背誦. 凡醫學誦者同)·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已上臨文), 針灸醫纂圖脉·和劑指南·銅人經(已上誦)·直指脉·針指指

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 이 의서들의 저자를 설명하고 있다.¹⁴⁾ 의과와 취재의 시험과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경국대전』의 의과(醫科) 과목과 의학(醫學)·침구의(針灸醫) 취재(取才) 과목표¹⁵⁾

번호	교과목	저자	의과(醫科) 시험방식	취재(取才) 시험방식		비고
				의학(醫學)	침구의(針灸醫)	
1	『찬도맥(纂圖脈)』	서진(西晉) 왕숙화(王叔和)	송(誦)	송(誦), 50세 이상은 배강(背誦)	송(誦)	『찬도맥결(纂圖脈訣)』
2	『동인경(銅人經)』	송(宋) 왕유일(王惟一)	송(誦)	송(誦), 50세 이상은 배강(背誦)	송(誦)	
3	『직지방(直指方)』	송(宋) 양사영(楊士瀛)	임문(臨文)	임문(臨文)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4	『득효방(得效方)』	원(元) 위역림(危亦林)	임문(臨文)	임문(臨文)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
5	『부인대전(婦人大全)』	송(宋) 진자명(陳自明)	임문(臨文)	임문(臨文)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
6	『창진집(瘡疹集)』	조선(朝鮮) 임원준(任元濬)	임문(臨文)	임문(臨文)		조선의 의서
7	『태산집요(胎產集要)』	조선(朝鮮) 임원준(任元濬)	임문(臨文)	임문(臨文)		조선의 의서
8	『구급방(救急方)』	조선인(朝鮮人)	임문(臨文)	임문(臨文)		조선의 의서
9	『화제방(和劑方)』	송(宋) 진사문(陳師文)	임문(臨文)	임문(臨文)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
10	『본초(本草)』	송(宋) 당신미(唐慎微)	임문(臨文)	임문(臨文)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
11	『경국대전(經國大典)』		임문(臨文)			조선의 법률서

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針經摘英集(已上臨文)].

14)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春官 宗伯, 取才條(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영인, 1979). 取才條. 纂圖脈西晉王叔和撰. 銅人經宋王惟一撰. 瘡疹集·胎產集要本國任元濬撰. 直指方·直指脉宋楊士瀛撰. 救急方本國人撰. 婦人大全·外科精要宋陳自明撰. 得効方元危亦林撰. 和劑方, 宋大觀中, 詔通鑒刊正藥局方書, 閱歲書成, 庫部郎中陳師文等校正. 本草宋唐慎微撰. 資生經宋王執中撰. 十四經發揮元滑壽撰. 和劑指南, 宋寧宗時, 許洪校正和劑局方, 又著和劑指南. 針經指南·子午流注, 金寶傑字漢卿著針經指南, 又著子午流注.

15) 『經國大典』 권3, 禮典 諸科; 『經國大典』 권3, 禮典 取才;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春官 宗伯, 取才條.

번호	교과목	저자	의과(醫科) 시험방식	취재(取才) 시험방식		비고
				의학(醫學)	침구의(針灸醫)	
12	『자생경(資生經)』	송(宋) 왕집중(王執中)		임문(臨文)	임문(臨文)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13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원(元) 활수(滑壽)		임문(臨文)	임문(臨文)	
14	『화제지남(和劑指南)』	송(宋) 허홍(許洪)	송(誦)		송(誦)	
15	『직지맥(直指脈)』	송(宋) 양사영(楊士瀛)			임문(臨文)	
16	『침경지남(針經指南)』	금(金) 두걸(竇傑)			임문(臨文)	
17	『자오유주(子午流注)』	금(金) 두걸(竇傑)			임문(臨文)	
18	『옥룡가(玉龍歌)』				임문(臨文)	원(元) 왕국서(王國瑞)의 의서
19	『외과정요(外科精要)』	송(宋) 진자명(陳自明)			임문(臨文)	
20	『침경적영집(針經摘英集)』				임문(臨文)	저자 미상의 송원대(宋元代) 의서

이 표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의과 과목은 송나라 의서가 대부분이다. 송 의학이 당시 조선의 주류의학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금나라와 원나라의 의서가 일부 들어있기는 하지만,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의과 시험에 금원 의학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의서 3종(『창진집』, 『태산집요』, 『구급방』)이 의관 시취에 사용될 정도로 중시되는 모습은 고려의 의과에서 자국 의서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발전상이다. 시험과목에는 『경국대전』도 포함되었는데, 관리(의관)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시험과목들은 고려시대 의학과 조선시대 의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¹⁶⁾

이상의 의과 시험 내용은 건국으로부터 100년 정도 흐른 성종대의 상황이다. 이제 다시

16) 고려시대 의업(의과)은 철저하게 唐의 제도를 고집하였다. 고려의 의업인 醫業式과 呪噤業式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혜안, 2010), 215-216.

조선 건국 직후로 돌아가서 의학교육의 진흥 시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이은 의학교육 조치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의료에 관심을 가진 고위관료들이 많았다.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조준(趙浚), 김사형(金士衡), 권중화(權仲和), 김희선(金希善) 등이 대표적이었다. 국왕을 보좌하여 조선의 의료진흥정책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제생원(濟生院)의 설치에 발벗고 나섰고, 의관 선발에 관여했으며, 『진맥도결(診脈圖訣)』·『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 등의 편찬과 간행에 참여하였다.

조선에서는 건국 후 6년이 지날 때까지도 ‘서울 안에 의원이 많지 않은’ 형편이었다.¹⁷⁾ 건국 직후부터 의료인 양성에 적극 뛰어든 배경이었다. 태조 2년(1393) 1월에는 전라도 안렴사(按廉使) 김희선(金希善)이 중요한 건의를 하였다.

외방(外方)에는 의약(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컨대 각도에 의학교수(醫學教授) 한 사람을 보내어 계수관(界首官)마다 하나의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양반(兩班) 자제(子弟)들을 뽑아 모아 생도(生徒)로 삼으소서.¹⁸⁾

지방 거점인 계수관마다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양반 자제를 선발하여 의학교수관에게 의약(醫藥)을 배우도록 하자는 건의였다. 건의한 지방 의학교육이 고려와 흡사해 보이지만, 생도 신분은 다르다. 고려에서는 향리 출신인 약점사(藥店史)를 교육시켰다. 태조 6년(1397)에 각도 의학교수관(醫學教授官)의 능력을 보고토록 한 데서¹⁹⁾ 의학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조 7년(1398)의 『향약제생집성방』 서문(序文)에도 지방의 의학원(醫學院)이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²⁰⁾ 조선초기 지방 의학교육의 원형은 김희선의 제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희선의 건의로부터 몇 달이 지난 태조 2년(1393) 10월에는 병학(兵學)·율학(律學)·자

17) 『太祖實錄』 卷12, 태조 6년(1397) 12월 19일(정유). 奉化伯 鄭道傳請曰, 京中醫者不多, 乞有吳慶祐, 金之衍等.

18) 『太祖實錄』 卷3, 태조 2년(1393) 1월 29일(을해). 外方無通曉醫藥者. 乞於各道遣醫學教授一員, 每於界首官, 置一醫院, 選聚兩班子弟, 以爲生徒.

19) 『太祖實錄』 卷12, 태조 6년(1397) 8월 23일(임인).

20) 『陽村先生文集』 卷17,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학(字學)·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의 육학(六學)이 설치되었다. 이때 설립된 의학(醫學)에서는 양가(良家) 자제(子弟)에게 의학교육을 시켰다.²¹⁾ 문맥으로 보아 서울에 육학을 설치한 것이 틀림없다. 지방과 중앙에서 ‘양반(兩班) 자제(子弟)’나 ‘양가(良家) 자제(子弟)’ 즉 관직을 지닌 지배층의 자제들이 의학을 공부하는 구조였다. 이들이 관리로 등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의직(醫職)에 종사할 터였다.

태조 6년(1397) 봄에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사인소(舍人所)를 설치하고 대소 양반(兩班)의 친인척에게 경사(經史)와 병서(兵書) 등을 교육시켰다.²²⁾ 이 사인소에 대해서는 권근이 자세하게 말하였다. 태조가 대소 신료(臣僚) 및 한량(閑良)의 아들·아우·조카·손자·사위들을 교육시켜 발탁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자, 수개월간 세족(世族)의 자제 수백 명을 찾은 후 사인소를 삼군부(三軍府)에 창설하고 경학(經學)·병학(兵學)·율학(律學)·산학(算學)·의술(醫術)·사예(射藝)의 육학(六學)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²³⁾

이 기사를 보면 사인소 육학의 하나인 제생지당(濟生之堂)[濟生]에서는 의술(醫術)을 가르쳤다. 교육 대상으로 성인[成童] 자제를 지목했으므로, 관리로 곧바로 등용할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도를 ‘세족의 자제[世族之胄]’ 또는 ‘공경·대부로부터 사(士)의 자제[公卿大夫至於士之子弟]’라고 명기한 것으로 미루어 지배층에게 의직을 맡기려는 태조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 사인소에 설치된 육학이 태조 2년(1393)의 육학과는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태조 2년의 육학을 발전시키려는 국왕의 뜻을 받들어 태조 6년(1397)에 기구를 개편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거나 편제로 보아 두 육학 사이의 연관성은 아주 강하다.

태조 2년과 태조 6년의 육학에서는 병학(兵學)·율학(律學)·의학(醫學, 醫術)·산학(算學)이 일치하며, 교육대상도 ‘양가 자제’와 ‘공경·대부로부터 사(士)의 자제’로 공통된다. 반면 자학(字學)·역학(譯學)은 태조 2년의 육학에만 있으며, 경학(經學)·사예(射藝)는 태조 6년의 육학에만 있다.

육학 가운데 경학(經學)은 유학(儒學)을 교습하는 기관이 분명한데, 병학이나 의학 등의 다른 교육기관과 병립(竝立)하는 점이 주목된다. 유학 교육을 다른 분야보다 우위에 놓지 않았다는 점은 육학 모두의 직임을 지배층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21) 『太祖實錄』 卷4, 태조 2년(1393) 10월 27일(기해).

22) 『太祖實錄』 卷11, 태조 6년(1397) 1월 24일(정축).

23) 『陽村先生文集』 卷12, 記類 義興三軍府舍人所廳壁記.

이처럼 건국 직후부터 중앙과 지방에 육학과 의학원을 설치한 이유는 의료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요구되어서였다. 그런데 고려말에 지방으로 쫓아낸 향리 자제 대신에 새로 지배층 자제들에게 의직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커졌던 데에는 여말선초 의관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²⁴⁾ 조선초에 명의로 손꼽혔던 양홍달(楊弘達)과 조청(曹淸) 같은 의관도 약방서(藥方書)에 밝지 못한 실정이었으며,²⁵⁾ 의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는 의관들이 마음대로 진료하다가 인명을 손상시켰다.²⁶⁾ 의관들의 지식은 유신(儒臣)들에 못미친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므로 유의(儒醫) 즉 의학적 소양을 갖춘 유자(儒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었다.

물론 육학의 편제에서 보이듯이 지배층에게 의학교육만이 요구된 것은 아니었다. 정도전은 「서적포(書籍鋪)를 설치하자는 시(詩)」에서 선비[士]는 경(經)·사(史)·자서(子書)·제가(諸家)·시문(詩文)과 의방(醫方)·병(兵)·율(律)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새로운 국가의 시작에 걸맞는 포부인 동시에, 유자가 모든 종류의 도서를 읽어 세상의 문물을 이끌자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였다. 이것을 정도전은 사문(斯文)을 흥기하는 일 즉 유교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적었다.

3. 현직 문신들의 의직 활용

태조대의 의료정책이 양반 자제 즉 관리후보집단에 대한 의학교육에 집중되었다면, 태종과 세종대에는 현직 문신을 의직(醫職)에서 두루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태종 6년(1406)에는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를 교육하는 십학(十學)이 설치되었는데, 십학에는 의학(醫學)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⁸⁾ 태종 12년(1412)에는 십학에 제조(提調)를 두었는데,²⁹⁾

24) 향리 출신의 의관 사례가 없지는 않다. 세종대의 裨尙文은 김해부 아전 출신으로 항상 內藥房(내의원)에 근무하면서 정3품에 이르렀다. 배상문 아버지의 나이가 88세라는 것으로 미루어 배상문은 태종대 후반 경부터 세종대까지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世宗實錄』 卷120, 세종 30년(1448) 4월 19일(갑술)].

25) 『太宗實錄』 卷29, 태종 15년(1415) 1월 16일(을묘).

26) 『世宗實錄』 卷108, 세종 27년(1445) 5월 22일(을미).

27) 『三峯集』 卷1, 七言古詩 置書籍鋪詩并序. 정도전은 儒·吏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儒者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9), 120-122 참고.

28) 『太宗實錄』 卷12, 태종 6년(1406) 11월 15일(신미); 『太宗實錄』 卷22, 태종 11년(1411) 11월 1일(무오).

29) 『太宗實錄』 卷24, 태종 12년(1412) 10월 17일(기사); 『世宗實錄』 卷2, 세종 즉위년(1418) 12월 17일(임진).

이때 당연히 의학제조(醫學提調)도 임명되었을 것이다.³⁰⁾ 제조나 도제조가 의료관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제조의 임명 조치는 노성한 관리들이 의료관서의 책임자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후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전의감 제조(提調)는 약재 출납, 의관의 전최(殿最), 의서습독관이나 의생들을 시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고위관료들의 의학제조 임명과 비슷한 시기에 문반 관리들도 의료관서에 겸관(兼官)으로 임명되었다. 태종 12년(1412)에는 전의감·혜민국·제생원 등의 직임은 무거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젊고 재주 없는 자 대신 나이와 직책이 모두 높은 자를 골라서 행직(行職)으로 겸차(兼差)하였다.³¹⁾ 행수법(行守法)에 비추어보았을 때, 행직(行職)은 의료관서의 관직보다 높은 품계를 지닌 문반이 파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견 문반 관리[文官]를 겸관으로 임명하여 전의감 등 의료관서들의 운용을 맡기는 조치였다.

더 나아가 세종대에는 문관(文官) 중에서 유의(儒醫)를 전의감 등에 겸관(兼官)으로 파견하여 약을 쓰는 임상과 의학교육을 담당시켰다. 즉 세종 16년(1434)에 다음과 같은 이조의 건의가 수용되었다.

의술은 모름지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소식(生克消息)의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자라야 능히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옛날 좋은 약방문이 유의(儒醫)의 손에서 많이 나왔으니, 이치에 통달한 문인(文人)이 겸하여 의술을 다스림은 옛날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전의감(典醫監)에 겸정(兼正)·겸부정(兼副正)·겸판관(兼判官)·겸주부(兼主簿)를 각 한 사람씩 더 설치하소서.³²⁾

이 기사에 따르면 진찰하고 약방문을 쓰는 것은 옛날부터 음양오행의 이치에 밝은 유의들의 몫이었다. 옛 방식을 따라 이제 문관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의감에 일부러 겸정·겸부정·겸판관·겸주부 자리를 만든 것은 세종의 강한 의중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관을 유의(儒醫)와 등치하는 서술이 인상적이다. 또한 세종 22년(1440)에도 유신(儒臣)을 교수관으로 임명하여 의생(醫生)과 의원(醫員)을 계속 교육시켰다.³³⁾

30) 의료관서의 제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264-267; 최이돈, 「조선초기 提調制의 시행과정」, 『규장각』 48, 2016.

31) 『太宗實錄』 卷24, 태종 12년(1412) 12월 4일(을묘).

32) 『世宗實錄』 卷65, 세종 16년(1434) 7월 25일(경자). 醫術須究知陰陽五行生克消息之理者, 乃能診病投藥. 且古之良方, 多出儒醫之手, 則通理文人, 兼治醫術, 古有其例. 加設典醫, 兼正, 兼副正, 兼判官, 兼主簿各一.

원래 유의(儒醫)란 자발적으로 의학에 관심을 갖는 유자(儒者)들을 의미했다.³⁴⁾ 하지만 조선초기에는 의서습득관제도를 비롯한 의료진흥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개념이 약간 달라졌다. 이 당시 유의는 주로 의료전문가로 양성되어 의료제도의 운용 즉 의직 수행, 환자 치료, 의학교육, 의서 편찬까지 모두 담당하는 문신관료들을 지칭했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활동한 유순도(庾順道)는 문반 관리로서 의료를 담당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유순도는 “비록 유학에 종사하는 자이나 순전히 음양술수(陰陽術數)와 의술(醫術)로 진출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³⁵⁾ 의학과 관련하여 그는 태종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의방(醫方)·오행복서(五行卜書)와 염금책(揜金冊)을 사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³⁶⁾ 유순도가 의료관서에서 근무한 명시적 기록을 찾을 수는 없으나, 그가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을 두루 경험하면서 의료관서의 겸관(兼官)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세종대의 문관들은 의서 편찬도 담당하였다. 세종대의 주요 의서로는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가 꼽힌다. 『향약집성방』의 편찬에는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 전의 노중례(盧重禮), 부정 박윤덕(朴允德)이 참여하였고³⁷⁾ 『의방유취』 편찬에는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金禮蒙), 저작랑 유성원(柳誠源), 집현전 직제학 김문(金汶)·신석조(辛碩祖), 부교리 이예(李芮), 승문원 교리 김수온(金守溫)이 참여하였다.³⁸⁾ 이들은 집현전(集賢殿)과 승문원(承文院)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의 지시에 따라 의서 편찬에 동원된 관리들이었다. 학문에 밝은 젊은 문관들을 의학자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종 27년(1445) 10월 기사에는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과 문관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집현전 학자들이 동원되어 『의방유취』 편찬을 막 시작한 무렵의 기록이다.

세자가 또 말하기를, “…… 지난번에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로서 나이 젊고 총민(聰敏)한 자 약간을 뽑아서 그 업을 익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의업(醫業)을 천하게

33) 『世宗實錄』 卷90, 세종 22년(1440) 7월 28일(무진).

34) 儒醫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金斗鍾, 『韓國醫學史』, 435-436; 成昊俊, 「儒醫 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6-1, 2003; 김성수,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韓國醫史學會誌』 28-2, 2015.

35) 『世宗實錄』 卷27, 세종 7년(1425) 3월 29일(기해). 順道雖儒者, 而專以陰陽術數與醫術進者也.

36) 『太宗實錄』 卷34, 태종 17년(1417) 12월 14일(을미).

37) 『世宗實錄』 卷60, 세종 15년(1433) 6월 11일(임진).

38) 『世宗實錄』 卷110, 세종 27년(1445) 10월 27일(무진).

여기고 다투어 서로 면하기를 꾀하니, 지금 등과(登科)한 자로 하여금 익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황수신이 아뢰기를, “등과한 자는 좋은 벼슬을 고루 거치려고 하는데, 지금 의업을 익히게 하면 반드시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학강이생(漢學講肄生)을 등과한 사람으로 시켰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경험입니다.”라고 하였다.³⁹⁾

태조대 이래로 의학을 장려하는 시책들이 쏟아졌는데, 양가(良家) 자제(子弟)들은 의업(醫業)을 백안시하고 이미 등과(登科)한 자는 의직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 합격한 문관(文官)이나 관리후보층인 양가의 자제들이 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꺼린 이유는 자신들은 문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식한 탓이었다.

결국 세종 28년(1446)에는 겸관제(兼官制)를 혁파하였다. 삼의사(三醫司)에서 겸관(兼官)하는 문관(文官)은 대부분이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인데 사무가 번거롭고 바빠서 의직 업무를 처리할 여가가 없다는 이유였다.⁴⁰⁾ 낭관 같은 일반 문관들이 모두 유의(儒醫)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문관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직 업무를 태만하였다. 문관들은 의료진흥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한 셈이었고, 겸관제는 제도화에 실패하였다.

Ⅲ. 세종~성종대 의료진흥정책의 추이

1. 의서습독관의 신설과 통유론의 논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초 이래 조선에서는 노성한 관료들을 의료관서의 제조로 임명하고, 중견 관리들에게는 의료관서의 겸직을 지시하였으며, 집현전과 승문원의 학자들은 의서 편찬에 동원하였다. 직위의 고하를 감안하면서 현직 관리들에게 적당한 의료 업무를 맡긴 것인데, 세종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세종 3년(1421)에 의서습독관(醫書習讀

39) 『世宗實錄』 卷110, 세종 27년(1445) 10월 20일(신유). 世子又曰…… 向者擇良家子弟年少聰敏者若干人, 俾習其業. 然此輩以醫業爲賤, 爭相窺免, 今欲使登科者習之, 何如? 守身曰, 登科者, 固欲揚歷華秩, 今令習醫, 必不用心. 昔漢學講肄生, 以登科者爲之, 未有其効, 此其驗也.

40) 『世宗實錄』 卷111, 세종 28년(1446) 1월 29일(정유).

官)을 신설한 것이다.

임금은 의원(醫員)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전 직장(直長) 이효지(李孝之) 등 두어 사람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궁중에서 의서를 읽게 하였다.⁴¹⁾

세종은 의료인을 늘리는 동시에 의술이 정밀해지도록 젊고 총민(聰敏)한 사족(士族)의 자제를 의서습독관으로 선발하여 의서들을 읽도록 하였다.⁴²⁾ 고위관료였던 이맹상(李孟常)의 아들로써 전의감 직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이효지는 의서습독관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현재까지 의서습독관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5명으로 이효지(李孝之), 이효신(李孝信), 전순의(全循義), 김지(金智), 임원준(任元濬), 김의강(金義綱), 박맹달(朴孟達), 권찬(權攢), 권인(權引), 유영정(劉永貞), 백계증(白繼曾), 원주(元柱), 곽인화(郭仁和), 반사동(潘士洞), 김균(金筠), 유희임(柳希任), 문목(文穆), 백승수(白承秀), 김계운(金繼雲), 배천석(裵天錫), 임제신(任悌臣), 장징지(張徵之), 금윤선(琴胤先), 이정희(李庭檜), 정습(鄭習)이다. 이 가운데 전순의, 임원준, 권찬은 당시 명의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임원준은 문과에 합격하여 의료정책을 주도하면서 1품까지 승진하였다. 이들은 의서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전순의는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식료찬요(食療纂要)』를 지었고,⁴³⁾ 임원준 역시 『창진집(瘡疹集)』을 저술하였으며 의관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의서습독관의 정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서습독관제도는 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⁴⁴⁾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현직 관리를 의직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의직을 담당할 유의(儒醫)를 의서습독관제도로 양성한다는 의료진흥정책이 완성되었다. 여러 차례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의서습독관의 기본방침은 사족(士族)을 임용하여 집중적으로 의학을 교육시킨 후 의직에 전임(專任)시키는 것이었다. 유의에게 의료제도의

41) 『世宗實錄』 卷11, 세종 3년(1421) 4월 8일(경자). 上患醫不精其業, 命前直長李孝之等數人, 始讀醫書于禁內. 의서습독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金重權, 「朝鮮初 醫書習讀에 관한 研究 -醫書習讀官을 中心으로-」, 『書誌學研究』 15, 1998; 鄭多函, 「朝鮮初期 習讀官 制度의 運營과 그 實態」, 『震檀學報』 96, 2003; 김성수,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독관의 운영과 활동」, 『延世醫史學』 22-1, 2019.

42) 『世祖實錄』 卷12, 세조 4년(1458) 3월 20일(정미).

43) 金斗鍾, 『韓國醫學史』, 293; 『成宗實錄』 卷202, 성종 18년(1487) 4월 27일(병신); 全循義, 『食療纂要』, 농촌진흥청, 2004.

44) 『世祖實錄』 卷17, 세조 5년(1459) 9월 4일(계미).

운용을 일관되게 맡기자는 이러한 입장은 통유론(通儒論)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통유(通儒)는 우유(迂儒, 우월한 유자) 또는 수유(豎儒, 더벅머리 선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⁴⁵⁾ 세조에 따르면 “무릇 유자(儒者)라 하더라도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를 모두 알아야만 비로소 통유(通儒)”였다.⁴⁶⁾ 이극감은 의방(醫方)에 밝은 통유에게 『의방유취』 교정을 감독시키자고 건의하였다.⁴⁷⁾

물론 통유론의 범위에 의학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풍수학(風水學)에 대해서도 세종은 유자(儒者)가 배워서 밝게 알아야 하는 분야라고 이야기하였다.⁴⁸⁾ 의서습득관 제도는 무경습득관(武經習讀官)이나 한학습득관(漢學習讀官)을 운영하는 과정과 병행되었으므로, 조선초기 각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⁴⁹⁾

앞서 언급한 태조대의 의학교육에서 지방의 ‘양반 자제’와 중앙의 ‘양가 자제’는 그 실체가 동일하다. 지배층이 포함된 광의(廣義)의 양인(良人)이다. 조선 건국 초에는 후대처럼 양반과 중인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으며, 양인이라 부르는 다수의 공민(公民)이 주도하는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다. 양천제(良賤制)를 기반으로 일원적인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이 시기에 사족(士族)은 ‘관직자와 그 가족’으로서 양인(良人) 유력자층이었을 뿐이다. 그후 국역체제가 이완 조짐을 보이는 15세기 말에 사족이 일정한 신분층을 지칭하게 된다.⁵⁰⁾

양인(良人)의 나라를 지향하는 조선 건국세력들은 고려말에 향리 출신 의료인의 수준이 너무 낮고 의료관서의 경황없는 부침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다. 의료분야에 대한 고민의 결론은 의학 공부 및 의료기구 운영이야말로 지식 습득을 업으로 삼고 합리적 사고방식이 체화된 사대부에게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성리학의 논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앙집권적인 의료정책이 필요하였다. 의료기구의 정비, 의학교육의 강화, 관찬의서들의 편찬, 전염병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등

45) 『世宗實錄』 卷39, 세종 10년(1428) 2월 20일(임신); 『世宗實錄』 卷127, 세종 32년(1450) 1월 18일(갑오).

46) 『世祖實錄』 卷33, 세조 10년(1464) 4월 26일(무신). 上又論術數之學, 謂右承旨李坡曰, 凡爲儒者, 盡曉天文, 地理, 醫藥, 卜筮而後始可謂之通儒, 汝其能之乎?

47) 『世祖實錄』 卷17, 세조 5년(1459) 9월 4일(계미).

48) 『世宗實錄』 卷61, 세종 15년(1433) 7월 27일(무인).

49) 鄭多函, 「朝鮮初期 習讀官 制度의 運營과 그 實態」 참고.

50) 기존 연구에서는 사족이 일정한 신분층을 지칭하게 된 것은 16세기 전반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강만길 편,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창작과 비평사, 2000); 김성우, 「良賤制說의 대두와 조선 초기 사회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史研究』 146, 2009; 정재훈, 「조선중기 사족의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참고.

이 국가체제로서 정비되어야 했다. ‘대의는 국가를 치료한다[大醫醫國]’는 표현에 부합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국왕과 핵심지배층들은 이러한 책무를 자임하고 있었으므로 15세기에 의료는 중시되어야 했다.⁵¹⁾

당시 양인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국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나온 이효지는 조선초기에 강원도관찰사와 중추원(中樞院) 부사(副使) 등을 역임한 이맹상(李孟常)의 아들로써 전의감 직장으로 근무하였고, 도승지와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등을 역임한 이문화(李文和)의 아들인 이효신은 의서습독관을 지낸 후 의직에 전념하였다.⁵²⁾ 16세기 『잡과방목(雜科榜目)』에 기재된 ‘유학(幼學)’의 분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문신(文臣)으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례가 꽤 많았다.⁵³⁾ 15세기에는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쥔 양인지배층(良人支配層)에서 의관을 포함한 기술관의 충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통유론과 관련해서는 세종대에 편찬된 『의방유취(醫方類聚)』의 첫문장이 인상적이다.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을 비롯한 의서는 물론이고 유교의 오경(五經)과 삼사(三史)의 역사서와 제자백가(諸子百家), 불경(佛經), 장자(莊子), 노자(老子)를 두루 읽으라고 당부하였다.⁵⁴⁾ 모든 종류의 서적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도전의 생각과 『의방유취(醫方類聚)』의 문장은 깜짝 놀랄 만큼 일치한다. 대의(大醫)가 되기 위해서는 박학다식한 유의(儒醫)가 되어야 하는데, 유의는 바로 의료분야의 통유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 통유를 지향한다고 해서 의직에 유자(儒者) 또는 문관(文官)만 봉직하는 것은 아니었다. 태조 6년(1397) 잡과인 의과(醫科)가 실시된 이래로,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는 갑오경장(1894년) 때까지 계속 시행되었다.⁵⁵⁾ 즉 의서습독관이 의료관서의 중추를 맡되, 의과를 통과한 의관들은 의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층구조를 지향하였던 것이다.⁵⁶⁾

51) 이경록, 「조선초기의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의료사회사연구』 1, 2018 참고.

52)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독관의 운영과 활동」 참고.

53) 이남희, 「朝鮮前期 技術官의 身分의 性格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高麗-朝鮮前期 中人研究』(신서원, 2001), 289.

54) 『醫方類聚』 卷1, 總論[-], 千金方, 論大醫習業.

55)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集文堂, 2000); 이남희, 「잡과의 전개와 중인층의 동향」, 『한국사시민강좌』 46, 2010 참고.

56) 醫科를 비롯한 雜科보다는 文科의 위상이 월등히 높았다[『太宗實錄』 卷1, 태종 1년(1401) 6월 4일(신유)].

2. 의료진흥정책의 강화에 대한 직분론의 고수

세종대 이후에도 의료를 진흥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단종은 예조와 삼의사(三醫司) 제조(提調)에게 의관·의학생도 및 자원한 의관자제(衣冠子弟) 10명을 정밀하게 선발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⁷⁾ 의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여전히 양반 자제로 설정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단종 2년(1454)과 단종 3년(1455)에는 의서습독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연달았다. 정원을 늘리고 매달 고강(考講)하면서 체아직(遞兒職)으로라도 우선 임용하되 동반(東班)에도 특별히 임명하는 것이 골자였다.⁵⁸⁾ 두 조치는 모두 의서습독관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동반 진출을 허용하는 장려책이었다.

세조 역시 의서습독관의 강(講)을 직접 받기도 할 정도로 의료진흥에 관심이 많았다.⁵⁹⁾ 세조 4년(1458)에는 의료 분과를 전문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문신(文臣)이 의학을 익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학(醫學) 고강법(考講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의서습독관이 된 사람도 전문과별로 분속(分屬)하도록 규정되었다.⁶⁰⁾ 2년 후 의학(醫學)의 취재(取才)가 전문과 대신 옛날 방식으로 복구되지만,⁶¹⁾ 의학 장려에 대한 세조의 강한 의지는 시종 일관이었다.

이 무렵에는 의서습독관이 관직을 받은 후에 태만해져서 연고를 핑계로 그만두려고 엿보기도 하였다. 의서습독관 자리가 관직을 구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자 조선 정부에서는 의서습독관이 다른 길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현관(顯官)이 되거나 과거에 합격한 경우에도 그대로 의료 관직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였다.⁶²⁾

세조 8년(1462)에는 의서습독관을 30명으로 늘리면서 아예 삼관(三館)의 관리와 초시(初試, 生員進士試) 합격자 중에서 의서습독관을 강제로 차출하였다.⁶³⁾ 실제로 이듬해에 의서습독관 30명은 3개 조로 나누어 내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내의원 의원과 똑같이 진료를

57) 『端宗實錄』 卷3, 단종 즉위년(1452) 9월 9일(무술).

58) 『端宗實錄』 卷12, 단종 2년(1454) 8월 22일(신축); 『端宗實錄』 卷13, 단종 3년(1455) 1월 25일(신미).

59) 『世祖實錄』 卷10, 세조 3년(1457) 11월 17일(정축); 『世祖實錄』 卷29, 세조 8년(1462) 12월 2일(임술); 『世祖實錄』 卷30, 세조 9년(1463) 2월 1일(경신).

60) 『世祖實錄』 卷12, 세조 4년(1458) 3월 11일(무술).

61) 『世祖實錄』 卷20, 세조 6년(1460) 5월 24일(기해).

62) 『世祖實錄』 卷12, 세조 4년(1458) 3월 20일(정미). 乞自今習讀官或歸養老親或身病或在喪終制者, 並令還仕, 然後方許敘用, 使不得由他路以進, 或授顯官或登科第, 亦令仍治本業, 每當遷轉, 兼考提調殿最, 以憑黜陟.

63) 『世祖實錄』 卷27, 세조 8년(1462) 2월 14일(기묘).

담당하였다.⁶⁴⁾ 관리후보자를 양성하는 의서습독관제도와 병행함으로써 의료진흥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조선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세조 10년(1464) 8월 6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날 국왕과 신하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 일의 발단은 며칠 전인 7월 27일의 '칠학(七學)' 설치였다. 관리들이 공부해야 할 분야를 7개 즉 천문문(天文門), 풍수문(風水門), 율려문(律呂門), 의학문(醫學門), 음양문(陰陽門), 사학문(史學門), 시학문(詩學門)으로 나눈 다음에 젊은 문신(文臣) 6명씩을 배정하여 학습하도록 한 것이다. 의학문에는 이수남(李壽男)·손소(孫昭)·이길보(李吉甫)·김의강(金義綱)·이익배(李益培)·유문통(柳文通)이 배치되었다.⁶⁵⁾ 그러자 사학문에 배정된 김종직(金宗直)이 8월 6일에 윤대(輪對)하는 것을 계기로 세조의 면전에서 직접 비판했다.

지금 문신(文臣)을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율려(律呂)·의약(醫藥)·복서(卜筮)·시사(詩史)의 칠학(七學)에 나누어 닦게 합니다. 그러나 시사(詩史)는 본래 유자(儒者)의 일이지만, 그 나머지 잡학(雜學)이야 어찌 유자들이 마땅히 힘써 배울 학(學)이겠습니까? 또 잡학은 각각 업(業)으로 하는 자가 있으니, 만약 권징(勸懲)하는 법을 엄하게 세우고 다시 교양을 더한다면 자연히 모두 정통할 것입니다. 그 능통하는 데에 반드시 문신이라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⁶⁶⁾

이에 세조는 이 분야들이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문신들을 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조 자신도 젊은 시절에 공부한 적이 있었다고 되받았다. 결국 세조는 “김종직은 경박(輕薄)한 사람이다. 잡학(雜學)은 나도 뜻을 두는 바인데, 김종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화를 내면서 김종직을 파직시키고 사학문에서 내쫓았다.

칠학이 실행된 지 한 달이 지난 8월 25일에 율려문의 어세공(魚世恭)은 『율려신서(律呂新書)』로, 의학문의 이길보는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으로 세조에게 강(講)을 바쳤다.⁶⁷⁾ 앞서 세조 27년(1445)에는 과거 합격자들에게 의학을 공부시키려고 했다가 그만

64) 『世祖實錄』 卷30, 세조 9년(1463) 5월 22일(경술).

65) 『世祖實錄』 卷33, 세조 10년(1464) 7월 27일(무인).

66) 『世祖實錄』 卷34, 세조 10년(1464) 8월 6일(정해). 今以文臣分肄天文·地理·陰陽·律呂·醫藥·卜筮·詩史七學. 然詩史本儒者事耳, 其餘雜學, 豈儒者所當力學者哉? 且雜學各有業者, 若嚴立勸懲之法, 更加教養, 則自然咸精. 其能不必文臣然後可也.

67) 『世祖實錄』 卷34, 세조 10년(1464) 8월 25일(병오).

두었는데, 세조는 삼관의 관리들이나 칠학에 배정된 현직 문신들을 통해 이것을 실행한 것이었다.

사실 세조는 이미 자신의 통유론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다. 문과(文科) 중시(重試)에 합격한 이영은(李永垠)에게 “그대는 마땅히 정미(精微)한 학문을 더욱 연구하되,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는 모두 유학자(儒學者)가 폐(廢)하지 않는 바이니, 그대는 이를 힘쓰라.”라고 당부하였다.⁶⁸⁾ 세조는 의학(醫學)·산학(算學) 등의 모든 잡학(雜學)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사람이었다.⁶⁹⁾

의서습독관제도 확대는 물론이고 문관들을 아예 배정하여 다양한 분야를 진흥시키겠다는 세조의 견해가 통유론(通儒論)을 대표한다면 김종직의 견해는 직분론(職分論)을 대표한다. 김종직은 의학이 잡학(雜學)이므로 유자(儒者)들이 배울 분야가 아니라고 반론하였다. 그는 문관들이 의학을 배워 관의(官醫)로 활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김종직이 국가 운영에 관해 깊게 다룬 글은 남아 있지 않지만, 「밀양 향교의 제자(諸子)들에게 주는 편지」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았다. 학교[鄉校]에서 성리(性理)의 학문을 강구(講究)하여 효제충신(孝悌忠信)에 힘쓴다면, 오륜(五倫)이 각각 그 차례를 얻고 사민(四民)이 각각 자기의 업(業)에 안주한다[五倫各得其序, 四民各安其業]는 인식이었다.⁷⁰⁾ 사림파(士林派)의 선두로서 성리학에 몰두한 김종직이 오륜이 엄격한 사회질서와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사민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사회를 꿈꾼 것은 분명하다.⁷¹⁾ 현직 문관들은 물론이고 관리후보집단인 사족까지 의료인으로 양성하려는 통유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김종직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김종직의 직분론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양성지(梁誠之)에게서도 전형적으로 보인다. 양성지가 성종 2년(1471)에 쓴 「편의삼십이사(便宜三十二事)」는 국왕에게 바친 글이다. 그는 무릇 책을 읽는 사람은 유자(儒者)가 되고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은 무장(武將)이 되며,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에 이르기까지 각각 업(業)으로 삼는 사람

68) 『世祖實錄』 卷6, 세조 3년(1457) 2월 9일(계묘). 上又謂永垠曰, 盛名之下, 其實難副. 爾之盛名在予, 爾當益究精微之學, 至於天文地理醫藥卜筮, 皆儒者所不廢, 爾其勉之.

69) 『世祖實錄』 卷30, 세조 9년(1463) 5월 30일(무오).

70) 『佔畢齋文集』 卷1, 書 與密陽鄉校諸子書.

71) 金泰永, 「初期 士林派의 性格에 대하여 -金宗直을 中心으로-」, 『慶熙史學』 6·7·8, 1980; 엄연석, 「김종직 경학사상의 성리학적 경향과 경세론」, 『泰東古典研究』 37, 2016 참고. 김종직과 그 문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엮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지식과교양, 2011); 宋雄燮, 『조선 성종대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이 있다라고 하였다.⁷²⁾ 양성지도 유자와 의원(醫員)은 직분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국왕에게 말한 것이다. 또한 15세기 말에는 이런 글도 저술되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공경재집(公卿宰執)은 공경재집의 일을, 근시대간(近侍臺諫)은 근시대간의 일을, 설어복종(替御僕從)은 설어복종의 일을, 부사서도(府史胥徒)는 부사서도의 일을 각각 직으로 삼는다. 각각 그 직분을 직으로 삼으면, 관의 일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러니 군자는 직분을 지키는 것이 귀중하다.⁷³⁾

위의 글은 연산군 5년(1499)에 서거정이 쓴 「수직론(守職論)」이다. 그는 신분계층의 차이에 따른 관직의 분업을 직분의 개념으로 잘 설명하였다. 김종직과 양성지와 서거정의 직분론은 15세기 말 일반 관리들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통유론과 직분론 양측의 신분은 모두 사족(士族)이었다. 하지만 후자인 일반 사족층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보다 더 충실하다면, 전자인 핵심지배층은 국가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경향을 견지하였으므로 관리들을 능력에 따라 기용하려고 하였다. 양반관료를 지향하는 일반 사족층은 직분론을 무기 삼아 다른 집단을 배제하면서 이른바 사림파로 성장해갔다. 반면에 핵심지배층은 ‘훈구척신(勳舊戚臣)’이라는 원래 뜻대로 건국과 국가 운영에 오랫동안 공을 세웠고 국왕과 운명공동체인 집단이었으므로 정책결정집단답게 국가체제와 의료부문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⁷⁴⁾ 따라서 사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는 세분되어 있었다.

3. 의료진흥정책의 법제화와 두 입장의 타협

의학을 진흥하려는 조선 정부의 정책은 성종대에도 이어졌다. 성종 3년(1472)에는 의서

72) 『訥齋集』 卷4, 奏議 便宜三十二事. 一. 嚴復戶. 臣竊見凡人如讀書爲儒, 學射爲武, 以至天文·地理·醫藥·卜筮, 各有所業.

73) 『燕山君日記』 卷32, 연산군 5년(1499) 1월 22일(임오). 至於治國, 公卿宰執職公卿宰執, 近侍臺諫職近侍臺諫, 替御僕從職替御僕從, 府史胥徒職府史胥徒. 各職其職, 則官事理, 而國治矣.…… 是故, 君子貴守職.

74) 이른바 勳舊派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은 개개인의 비리를 집단의 비리로 등치시키는 것이다. 도덕론의 관점에서 나온 비판이 당시 훈구파의 정치적 역할까지 백안시하게 만든다. 오히려 훈구파의 역사적 과오는 물러가야 할 시기에 자리를 지키고,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옛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계유정난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세종대 집현전의 신진세력이 고위관료로 성장하면서 점차 권귀화되었을 것이다. 세조 정권에 적극 참여했다는 윤리적인 비난을 제외하면, 신숙주의 행적이 조선 건국 후의 신진세력에게는 가장 전범이 되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

습독관의 동반 진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의서습독관이 노의(老醫)를 따라다니면서 약(藥) 쓰는 법을 배우도록 명시하였다.⁷⁵⁾

의서습독관 규정들은 대체로 『경국대전』(성종 16년, 1485)에 수록되었다. 의서습독관 30명에게 의서를 강독시켜 의료전문가로 양성하는 내용이었다.⁷⁶⁾ 성종 22년(1491)까지 의 법령을 수집한 『대전속록(大典續錄)』에서는 현임 외에 전임 의서습독관도 시험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전의감에만 배속되어 있던 의서습독관 30명이 분리되어 내의원 습독관 10명과 전의감 습독관 20명으로 바뀌었다.⁷⁷⁾ 세종대에 시작되어 단종, 세조, 성종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의서습독관 장려책이 법제화된 것이었다.

하지만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이 공포되는 성종대가 의료진흥정책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 무렵에는 양반사족 출신들이 의서습독관을 기피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종 2년(1454) 이래로 성적이 좋은 의서습독관에게는 동반(東班)을 제수하도록 허용하였고 『경국대전』에도 이 내용이 수록되었지만, 현실은 달랐다.⁷⁸⁾ 사족 출신인 의서습독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자리로 의관보다는 문반(일반 관직)을 선호하였다. 15세기 전반에 고위관료의 아들인 이효지나 이효신이 의직에 종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성종대 무렵부터 조선은 이른바 양천제(良賤制)사회에서 사족(士族)사회로 전환되었다. 조선초기에 존재하던 광의의 양인이 서서히 양반사족과 중인으로 분화되면서 양반사족들이 다른 계층을 배제해 나가는 모습이 ‘사림(士林)’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운영의 주도권은 양인지배층에서 사족지배층(士族支配層)으로 바뀌었다. 특히 사림계의 관료들이 진출하면서 의학을 이른바 잡학(雜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⁷⁹⁾

이런 분위기에서는 직분론이 통유론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현직 문신의 의직 겸직도 사라졌다. 중종은 통유론을 앞세워 천문(天文)·지리(地理)·명과(命課)·의학(醫學)의 직책에 합당한 문관(文官)을 겸관으로 임명했다가 영의정인 정광필로부터 “요즘 잡

75) 『成宗實錄』 卷16, 성종 3년(1472) 3월 14일(경술).

76)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典醫監(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1997, 78);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勵(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1997, 296~297).

77) 『大典續錄』 卷3, 禮典 獎勵(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1997, 60); 『大典續錄』 卷4, 兵典 遞兒(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1997, 78).

78) 현실에서는 의서습독관의 동반 현직 서용이 만만치 않았다[『成宗實錄』 卷173, 성종 15년(1484) 12월 21일(갑술)].

79)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乙酉文化社, 1983); 김성우, 「良賤制說의 대두와 조선 초기 사회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 참고.

술을 겸임한 사람들이 여론으로 인하여 이 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또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무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라는 반대에 직면하였다.⁸⁰⁾

의서습독관으로 대표되는 통유론이 퇴조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도 유망한 양반사족들을 의서습독관이나 일반 의관으로 끌어들이 유인요소가 점점 사그러들었다. 성종대 이후에 의서습독관 출신들은 승진에도 명백한 제한이 생겼다. 사족 출신으로 의서습독관을 거친 유영정은 연산군 9년(1503)에 동반 임명이 좌절되었다. 『경국대전』에 비추어보면 탁월한 성적을 낸 유영정은 동반의 현직에 임용이 가능했지만, 신하들은 특지(特旨)가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던 것이다.⁸¹⁾ 권찬 이후로는 특지가 있어야 동반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즉 의서습독관의 동반 진출은 『경국대전』의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화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유자(儒者)들 내부에서는 어차피 의학이 기본 소양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들은 『소학(小學)』에서 의술(醫術)을 배워야 한다고 한 주자(朱子)의 말을 명심했으며, 의서에 사용하는 문자(文字)는 경서(經書)와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여겼다.⁸²⁾ 의료진흥정책으로 압박하지 않더라도 대대로 의학에 밝은 고위관료들의 등장이 당연한 이유였다.

중종대와 명종대에 활동한 안현(安玼)은 약리(藥理)에 정통하여 구고고(救苦膏) 같은 약을 조제(調製)하거나 증종의 치료에 동참(同參)할 정도여서,⁸³⁾ 통유(通儒)라는 표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안현을 비롯하여 황자후(黃子厚), 허종(許琮)처럼 의약(醫藥)에 밝은 이들이 의료관서의 제조를 맡으면서 통유와 전업 의관의 협업 정도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후대의 이른바 ‘동참(同參)’이라고 부르는 협업체제의 실마리였다.

셋째, 무엇보다 의서습독관들의 대안이 떠오르고 있었다. 의과에 합격한 전업 의관들이 15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문가집단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이미 세종 22년(1440)에는 약리에 정통한 3품 의원을 교관(敎官)으로 차임하도록 한 데 이어서, 단종 즉위년

80) 『中宗實錄』 卷68, 중종 25년(1530) 5월 2일(신묘). 光弼曰, 近來雜術兼任之人, 以有物論, 專不爲業, 亦不往誨云. 此乃無益之甚也.

81) 『燕山君日記』 卷50, 연산군 9년(1503) 7월 10일(갑술); 『燕山君日記』 卷50, 연산군 9년(1503) 7월 12일(병자).

82) 『明宗實錄』 卷14, 명종 8년(1553) 3월 2일(무인). 朱子於小學書中, 亦載其不可不學之言, 未聞以雜術而廢之也. 我國地隔中原, 書冊甚稀, 不有印出, 則欲學其術者, 何所據乎? 且天文醫術之書, 所用文字, 與儒書不同, 必別有工夫, 然後可能通曉.

83) 『中宗實錄』 卷102, 중종 39년(1544) 4월 26일(갑오).

(1452)에 이선제(李先齊)는 의생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책으로 의서에 밝은 노련한 의관 [知醫書老醫]에게 매일 강의하도록 건의하였다.⁸⁴⁾ 의관들의 성장을 반영하여 성종 12년 (1481)에는 성종이 의관의 당상관 승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⁸⁵⁾

의관 가운데는 의서를 편찬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이도 등장하였다. 노증례의 『태산요록(胎産要錄)』,⁸⁶⁾ 허저의 『의방요록(醫方要錄)』,⁸⁷⁾ 김순몽과 박세거의 『간이벽은방(簡易辟瘟方)』이 대표적이었다.⁸⁸⁾ 임상에서도 명의(名醫)로 꼽히는 의관들이 많아졌다. 이미 세조대에는 김상진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승진하였는데,⁸⁹⁾ 그는 성종대에도 최고 의관이었다.⁹⁰⁾ 이 무렵 의관인 송흙, 하종해, 박세거, 김흥수 등도 확실하게 명의로 인정받고 있었고,⁹¹⁾ 명종대 이후로는 유지번, 김운은, 양예수가 명성을 떨쳤다.⁹²⁾ 전업 의관들의 실력이 높아지면서 사족 출신들에게 의직 운용이나 임상을 맡길 필요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사람파로 대표되는 사족지배층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통유론이 일방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의술에 밝았던 임원준은 성종대에 이르러 ‘잡술에 종사한다[治雜術]’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원준은, 옛날의 재상(宰相) 중에는 글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약재(藥材)를 제조(劑調)하여 인명(人命)을 구제하는 데 힘쓴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였다.⁹³⁾ 의학은 재상이 마땅히 익혀야 할 지식이라는 통유론의 주장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유론은 의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종대에 한학습독관(漢學習讀官)과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을 지낸 똑똑한 유생(儒生)들에 대한 평가가 중종대 기

84) 『世宗實錄』 卷90, 세종 22년(1440) 7월 28일(무진); 『端宗實錄』 卷4, 단종 즉위년(1452) 12월 25일(계축).

85) 『成宗實錄』 卷136, 성종 12년(1481) 12월 16일(병진).

86) 『世宗實錄』 卷63, 세종 16년(1434) 3월 5일(임오).

87) 『成宗實錄』 卷274, 성종 24년(1493) 2월 15일(경술); 『成宗實錄』 卷230, 성종 20년(1489) 7월 25일(신사).

88)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序.

89) 『世祖實錄』 卷34, 세조 10년(1464) 11월 4일(계축).

90) 『成宗實錄』 卷7, 성종 1년(1470) 9월 23일(무술).

91) 『成宗實錄』 卷233, 성종 20년(1489) 10월 21일(을사); 『中宗實錄』 卷19, 중종 9년(1514) 1월 10일(갑술); 『中宗實錄』 卷31, 중종 12년(1517) 12월 8일(기유); 『中宗實錄』 卷47, 중종 18년(1523) 2월 28일(기해).

92) 『明宗實錄』 卷23, 명종 12년(1557) 7월 12일(계해). 명종 사망 무렵에는 양예수도 신진 의관으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93) 『成宗實錄』 卷93, 성종 9년(1478) 6월 15일(을사). 下任元濬上疏于承政院. 其疏曰…… 其曰治雜術者, 世宗末年遺疾, 謬聞臣聰慧, 命仕內醫院, 習讀醫書, 則臣之學醫, 亦世宗之命也. 況古今文學宰相, 非徒講說其書, 親劑藥材, 以救人爲務者非一, 則弘文館以醫爲雜術而毀臣, 臣實未解.

록에 남아 있다. 유생들이 초시 합격 후에 습독관이 되었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서용되고, 재상(宰相)이 되어서는 승문원(承文院) 제조(提調)에 제수됨으로써 외교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다.⁹⁴⁾ 15세기 조선에서 통유론의 효용성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반면 직분론을 고집한다고 해서 사족지배층이 통유론을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크게 보자면 의료분야의 업무로는 의학교육을 비롯하여 의직 수행, 의서 편찬, 환자 진료 등을 꼽을 수 있다.⁹⁵⁾

의학교육의 경우에는 문관(文官)의 역할이 절실하기도 했지만, 문관들도 교육은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의학을 포함한 지식의 습득은 유자들의 기본적인 소임이었기 때문이다. 허중(許琮)이 의사제조(醫司提調)를 역임한 시기에는 김순몽과 하종해가 배웠고,⁹⁶⁾ 혜민서에는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학교수(醫學教授)로 문관 1명이 계속 배치되어 있었다.⁹⁷⁾ 따라서 문관들에 의한 의학교육은 지속되었다.

의직 수행과 관련하여, 사족들은 의료관서의 제조직을 유지하였다. 의료관서를 감독하는 것은 직분론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제조는 담당 의료관서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송흠이나 하종해 같은 의관들에게 혜민서 제조는 양보하더라도 전의감 제조는 끝까지 문관들의 차지였다.⁹⁸⁾

이 글 머리말에서는 국가체제에서 의직의 위상과 의료인의 지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의직의 위상은 핵심적인가[本] 사소한가[末]로 구분되고, 의료인의 지위는 존귀한가[貴] 비천한가[賤]로 구분된다. 통유론에서는 의직이 국가체제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양인지배층에서 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대 국왕들을 포함하여 조선의 건국세력과 핵심지배층의 입장이었다.

반면 직분론에서는 의직이 사소한 말업(末業)에 해당하므로 전업 의관들에게 담당시키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다수의 일반 관리들과 관리후보집단인 양인지배층의 입장이

94) 『中宗實錄』 卷51, 중종 19년(1524) 8월 12일(갑진).

95) 기존 연구에서는 의서습독관의 역할을 의관의 교육과 의서 편찬을 담당하고, 국왕·왕실 및 대신의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관서의 제조로서 의료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鄭多函, 「朝鮮初期 習讀官 制度의 運營과 그 實態」, 59).

96) 『中宗實錄』 卷32, 중종 13년(1518) 3월 10일(기유).

97)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惠民署(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1997, 96~97).

98) 『中宗實錄』 卷19, 중종 9년(1514) 1월 8일(임신); 『燕山君日記』 卷9, 연산군 1년(1495) 9월 26일(병오); 『燕山君日記』 卷9, 연산군 1년(1495) 9월 29일(기유).

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15세기 내내 대립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갔다. 그 결론은 의직을 필수적인 영역으로 존중하되 전업 의관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었다. 즉 진료로 상징되는 의직 업무는 전업 의관들에게 맡기면서, 의료정책을 비롯하여 의료관서 감독과 의학교육의 일부는 양반사족이 담당하는 내용이었다.

15세기가 저물어가는 성종 24년(1493)에 예조판서 성현(成俔)은 “신은 천문(天文)·지리(地理)·복서(卜筮)·의약(醫藥)·통역[譯語] 등의 일체의 잡술(雜術)은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중에서 하나도 빼어 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제학(諸學)을 동반(東班)의 직임(職任)으로 삼고 과거(科擧)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⁹⁹⁾ 성현의 이 발언에는 조선 건국 이래 100년에 걸친 두 입장 사이의 타협안이 담겨 있다.

IV. 맺음말

본문에서는 조선초기 의료정책의 입안과 실행, 의학의 학습과 환자의 치료 같은 의직 수행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둘러싼 의료진흥정책을 살펴보았다. 건국 직후부터 정도전을 비롯한 건국주도세력과 태조는 연이어 의학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에는 의학원을 설치하고 서울에는 육학을 설치하여 지배층 자제들에게 의학교육을 권장하였다. 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조치였다. 유자(儒者)가 모든 지식을 습득하여 세상의 문물을 이끌어 가자는 강한 의욕이었다.

이어서 고위관료를 의료관서의 책임자인 제조로 임명하면서 현직 문신들을 의직에 투입하였다. 겸관제(兼官制)를 활용하여 중견 관리들이 의료관서를 운용하며, 집현전과 승문원의 관리들은 의서 편찬에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 신하들은 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겸관에 소극적이었다. 일반 관리인 문반들은 의직을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간주한 것이다. 결국 세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겸관제는 제도화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조선 정부에서는 의료진흥정책을 강화시켜나갔다. 대표적인 조치가 세종 3년(1421)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제도의 시행이었다. 의서습독관의 내용과 성격은 세종대부터 『경국대전』(성종 16년, 1485)까지 60여년 동안 변동하였다. 의서습독관은 통유론

99) 『成宗實錄』 卷282, 성종 24년(1493) 9월 1일(임진). 臣意以爲, 天文·地理·卜筮·醫藥·譯語一切雜術, 莫不有補於治道, 闕一不可. 自祖宗朝以諸學爲東班之職, 至設科第, 所以重其任也.

(通儒論)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의료전문가인 유의(儒醫)를 양성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유자(儒者)가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는 통유론에 대한 일반 문관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의서습독관 정원을 늘리고 동서반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장려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세조는 칠학(七學)을 설치하여, 현직 문반 가운데 똑똑한 6명을 의학문(醫學門)에 배치하여 의학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조와 정면으로 맞부딪힌 김종직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일반 문관들의 입장은 직분론(職分論)의 고수였다. 양성지도 똑같이 직분론을 주장하였고, 얼마 뒤의 서거정도 「수직론(守職論)」을 저술하였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부여된 자리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직임을 완수하자는 논리였다.

결국 성종대까지 보유했던 의료진흥정책은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의 규정으로 수렴되었다. 하지만 양반사족들은 의서습독관이 되는 것조차 꺼림으로써, 의료의 담당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국초에 꿈꾸었던 양인의 나라는 어느덧 계층 분화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의서습독관제도 역시 연산군대 이후에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15세기를 거치면서 의과에 합격한 의관들이 의서를 편찬할 정도로 실력이 늘고, 명의로 손꼽히는 경우들도 늘면서 의서습독관의 자리를 대체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초기 국왕들과 건국주도세력을 포함한 핵심지배층의 입장은 유자(儒者)가 통유(通儒)가 되어 의료를 담당하자는 것이었다. 반면에 일반 문관이나 관리후보층인 양반사족의 입장은 계층간의 직분(職分)이란 게 엄연하므로 사족이 의직을 담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의직은 필수적이지만 그 운영은 의관에게 맡기자는 데 통유론과 직분론이 합의하였다. 의료관서의 감독과 의학교육의 일부는 사족이 맡되 환자 치료, 의서 편찬, 의직 수행 등은 전업 의관층이 맡는 타협이었다. 그 결과 15세기 말 이후에는 통유론이 퇴조하면서 전업 의관들이 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핵심어: 조선초기, 의료정책, 통유론(通儒論), 직분론(職分論),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

논문 투고일: 2020. 3. 23. 심사 완료일: 2020. 5. 4. 게재 확정일: 2020. 5. 19.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國朝寶鑑』
『陶隱先生文集』, 『三峯集』, 『陽村先生文集』, 『訥齋集』, 『佔畢齋文集』
『醫方類聚』, 『食療纂要』, 『簡易辟瘟方』

2. 연구단행본

金斗鍾, 『韓國醫學史』(探求堂, 1966)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엮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지식과교양, 2011)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宋雄燮, 『조선 성종대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일조각, 1987)
申幼兒, 『朝鮮前期 遞兒職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劉承源, 『朝鮮初期 身分制研究』(乙酉文化社, 1987)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혜안, 2010)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0)
李成茂, 『朝鮮兩班社會研究』(一潮閣, 1995)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集文堂, 2000)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태학사, 2002)
鄭多函, 『朝鮮前期 兩班 雜學兼修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乙酉文化社, 1983)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9)
한영우, 『朝鮮時代 身分史研究』(집문당, 199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自家 出版, 1963)

3. 연구논문

- 김성수,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韓國醫史學會誌』 28-2, 韓國醫史學會, 2015
-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강만길 편,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창작과 비평사, 2000)
- 김성우, 「良賤制說의 대두와 조선 초기 사회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史研究』 146, 2009
- 金良洙,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진출」, 『東方學志』 104, 1999
- 金重權, 「朝鮮初 醫書習讀에 관한 研究 -醫書習讀官을 中心으로-」, 『書誌學研究』 15, 1998
- 金泰永, 「初期 士林派의 性格에 대하여 -金宗直을 中心으로-」, 『慶熙史學』 6·7·8, 1980
- 成昊俊, 「儒醫 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6-1, 2003
- 성호준·윤창열, 「儒醫 의학의 사상적 특성」,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6-2, 2007
- 孫弘烈, 「世宗朝의 醫療政策」, 『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경희대 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87)
- 엄연석, 「김종직 경학사상의 성리학적 경향과 경세론」, 『泰東古典研究』 37, 2016
- 이경록, 「조선초기의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의료사회사연구』 1, 2018
-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독관의 운영과 활동」, 『延世醫史學』 22-1, 2019
- 이남희, 「16·17세기 雜科入格者의 前歷과 官路 進出」, 『民族文化』 18, 1995
- 이남희, 「朝鮮前期 技術官의 身分的 性格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高麗-朝鮮前期 中人研究』(신서원, 2001)
- 이남희, 「잡과의 전개와 중인층의 동향」, 『한국사시민강좌』 46, 2010
- 이민호·안상영·권오민·하정용·안상우, 「世宗代의 醫官 盧重禮의 삶과 醫史學에의 貢獻 -鄉藥 및 產婦人科 醫學의 發展과 관련하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14-2, 2008
- 이숙경, 「조선 성종의 향약활용과 의료정책」, 『韓國人物史研究』 18, 2012

- 鄭多函, 「朝鮮初期 習讀官 制度의 運營과 그 實態」, 『震檀學報』 96, 2003
- 정두희, 「조선왕조 건국사에 대한 과거의 연구」, 『왕조의 얼굴』(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 정재훈, 「조선중기 사족의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 최이돈, 「조선초기 提調制의 시행과정」, 『규장각』 48, 2016
- 최이돈, 「조선전기 특권신분과 신분구조」, 『조선전기 신분구조』(景仁文化社, 2017)

Abstract

Development of the Medical Promotion Policy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Confrontation and Compromise Between a Well-informed Confucianist Theory (通儒論) and Discrimination Theory (職分論)

Lee, Kyung-rok*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edical policy of the early Joseon period.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medical field shortly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was who would be responsible for medical practice,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medical policy, medical learning, and patient treatment.

The founding forces of Joseon, who witnessed the problems of medical care at the end of Goryeo, educated the young people of the Yangin (良人) class and instated the current literary officials into medical affairs. Subsequently,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 (世宗), the medical learning officer program (醫書習讀官) was conducted. The program was a system for training medical professionals by intensively educating the young people of the ruling class. This position to train medical professionals at the national level can be called a well-informed Confucianist theory (通儒論). The position of this theory that Confucian scholars should be fluent in all fields is also seen in the Chilhak (七學, seven schools) under the reign of King Sejo (世祖).

The well-informed Confucianist theory was strongly opposed by the Yangban (兩班) class, including current officials who promoted the discrimination theory (職分論). They argued that everyone has a fixed position, and that the medical bureau was the position that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were in charge of.

These two positions were challenged throughout the 15th century until a

*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mpromise was reached. The compromise was that the ruling class would be in charge of the supervision of the medical bureau and a part of the medical education, while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would be in charge of the practice of medical care such as patient treatment, medical book compilation, and medical profession.

Key Words : Early Joseon Period, Medical policy, a Well-informed confucianist theory(通儒論), discrimination theory(職分論), Medical learning officer program(醫書習讀官)